

2017년 광고계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2017년은 붉은 닭의 해로 새벽을 깨우는 시작과 희망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정유년(丁酉年) 새해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과 광고인 모두에게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까지 얼어붙으면서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고 매체시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그동안 블루오션으로 여겼던 미디어산업의 레드오션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전문가들이 뽑은 금년 경제 키워드가 바로 범피로드(Bumpy road)와 생존모드였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리스크가 많은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서 생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으로는 정치적 포퓰리즘(populism)이, 밖으로는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복병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분주해야 할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반기업정서와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사업과 투자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경기부진에 정국혼란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의미의 우후지실(雨後地實)을 되새기며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의미가 담긴 새해 새아침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다시금 우리 경제와 광고산업의 도약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올해 광고시장의 선순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걸림돌 해소를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광고주, 매체사, 광고회사를 비롯한 광고 주체들 간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광고시장의 저변 확대와 선진화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한해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KAA**

한국광고주협회
이정치 회장